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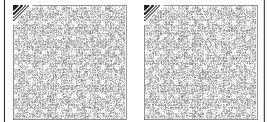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새보람

Saeboram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6년 4월 274호

(02) 796-4280 www.kappd.or.kr

3 뉴스
함께서울 누리축제



12 특집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16 국제
27년만의 바이올린 연주
최첨단 마음읽기 기술로 재기



21 시선8616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장애계 비례대표 전무! 분노 증폭



겁데기 공약! 무개념 공천!
장애계 요구 외면한 정당! 투표로 심판하

장애인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범장애계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범장애계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4월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장애인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계 대표단체를 비롯한 200여 개 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진 총선연대는 제20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정에 장애계 대표를 배제한 결과를 두고 강력히 비판했다.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정에서는 주요 정당이 장애인 비례대표를 후순위에 배치해 사실상 공천배제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범장애계는 장애인 비례대표의 제도적 보장과 장애인이 정치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비례대표를 안전권에 우선 배치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열린 총궐기대회에

서 투쟁 발언에 나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부회장은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무개념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240만 장애인 유권자는 정치권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병돈 상임대표는 "2004년부터 장애계 인사를 비례대표로 배정해 장애인 법안을 담당하게 한 것은 소통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해법을 찾자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이후 장애계 인사를 비례대표로 선택해 온 정치권에 국민은 감동했고, 장애인 비례의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을 발의하며 복지 발전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상임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커다란 통로를 무참히 빼앗겼다"며 "복지 후퇴를 자행하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에너지로 바꿔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해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총선연대는 투쟁 발언과 연대 발언 등으로 궐기대회를 진행한 후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며 장애인 정치세력화 실현을 위한 구호를 외쳤다.

당초 광화문까지 행진을 이어가려던 계획은 경찰에 의해 가로막히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행진을 봉쇄했다. 이에 벚꽃축제에는 시민들이 장애인에게 길을 터 줄 것을 요구하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오늘을 출발선으로 삼아 시민들과, 장애 대중과 함께 정치권에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화답했다.

30일,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16개국 세계 정상급 선수 출전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출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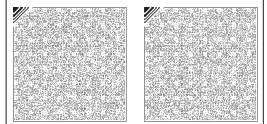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4월 30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개최하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는 세계 16개국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전문 휠체어 육상 선수들의 풀(42.195km)·하프(21.0975km), 핸드 사이클 하프(21.0975km) 종목과 휠체어경쟁(5km) 부문, 비경쟁인 어울림(5km)부문 경기까지 다채롭게 펼쳐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지장협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이 협찬하고, 사회복합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12면에 계속>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이건휘 충남협회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4월 20일 63빌딩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 인사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등 장애인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꿈을 이루는 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견고하게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춰 모든 정책을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선포식을 하고 있다.

수립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 의지를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 훈·포장 등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한국장애

인선교단체총연합회 윤형영 회장, 목련장은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이진희 협회장, 석류장은 사회복지법인 천마 박근연 대표이사, 참일터직업재활원 손기식 원장이 받았다.

이 중 이진희 협회장은 “큰 상

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분발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민포장은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박종규 대표이사 등 3명, 대통령 표창은 경남농아인협회

고성군지부 김현태 지부장 등 5명이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기영남 경영총괄부장 등 4명이 받았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국내 유일의 맞춤형 스포츠 휠체어를 생산하는 휠라인 금동욱 대표와 발달장애인 최초 명창을 꿈꾸는 전주 예술고등학교 장성빈 군, 88서울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의 서울뇌성마비복지관 축구단 윤정열 코치가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우리 함께 맞춰가요. 말할 땐 눈높이를, 걸을 땐 발걸음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 슬로건을 확산하고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설 홍보대사로 팜페라 테너 임형주를 위촉했다.

2016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한화호텔 김영철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16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6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김영철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 28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김영철 대표이사는 객실서비스원, 조리사, 바리스타 등 지속

적인 직무 발굴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만에 장애인 근로자를 48.5% 증가시켜 장애인 고용률을 3.4%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대기업 부문도 장애인 취업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특히 2013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호텔 부문의 ‘더 플라자’는 업계 최초로 중증발달장애인 정규직 호텔리어를 채용해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산업포장은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한국관광공사의 정복신 씨가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사회적 편견을 깨고 지적장애인을 고용하며 일자리 영역을 확대한 ㈜스타비스커피코리아의 이석규 대표이사와 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고용률 5.75%를 달성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의 김천주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2016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전경.

한편,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수여하는 트루컴퍼니상은 롯데하이마트(주)가 대상을 차지하는 등 5개 기업이 수상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

부 장관은 정부 포상을 받은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 업무 유공자 등을 격려하며, “정부도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 모인 도민 3천여 명이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와 경인일보(사장 송광석)는 4월 19일 군포 시민체육

광장에서 도내 장애인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2회 경

제22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성황

3천여 명 모여 장애인의 날 기념

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이하 장애인축제한마당)을 개최했다.

손정윤 성악가의 공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 기념식에서는 장애를 극복한 모범 장애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장애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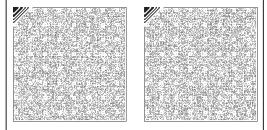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선정해 후원금을 지원하며 격려했다.

김기호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지금은 소통과 연대의 시대인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차별과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열린 2부 어울림축제한마당은 시·군 대학 체육대회로 치러졌다. 기존 종목인 좌식 배구, 배드민턴, 휠체어탁구, 휠체어경주와 시범종목으로 채택한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혔다.

선수의 경쟁을 펼친 결과 종합 우승은 동두천시 선수단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수원시, 3위는 하남시가 기록했다.



장애인의 날 맞아 '함께서울 누리축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즐긴 시민 문화 축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축제, '함께서울 누리축제'가 4월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됐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2016 누리축제 조직위원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축제는 2016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는 여의도광장 특별무대에서 문화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1부는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일반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하는 무대였다. 장애인 공연팀 JY벨리공연단, 푸르메오케스트라, B&W, 다복풍물패, 비버데프에술단, LUX 빛무용단, 절대음감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다음으로 2부에는 하늘나라 합창단과 빛소리친구들, 이남현 성악가의 식전공연에 이어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서 손영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



'함께서울 누리축제' 참가자들이 희망을 담은 풍선을 날렸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장애인과 서울시민이 오늘처럼 즐거운 축제를 하듯 앞장서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서 무대에 오른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관내 복지관에 가족지원팀을 신설하고 오는 7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하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올해 12회째를 맞는 '서울시 복지상-장애인 인권분야' 시상도 진행했다. 이 상은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

를 주고 사회통합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해 왔다. 현재까지 총 64명의 시민이 수상했다.

올해는 서울시농아인협회 문병길(54·청각2급) 회장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회장은 2009년 서울농아인협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서울특별시수화전문교육원과 농아노인지원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설립해 농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애인 당사자 분야에서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탁우(50·정신장애3급) 대표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장애인 인권지원자 분야의 최우수상은 발달장애부모 김명실 씨에게 돌아갔다.

그 밖에 장애인 당사자와 인권지원자 분야의 우수상은 각각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현정 씨,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최명숙 팀장과 정진옥 씨가 수상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 진종오 본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박태양 지사장 등의 내빈과 시민 1000여 명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끝으로 3부에서는 '함께 나눔 콘서트'를 마련해 손승연, 김정민 등 인기 연예인이 무대를 채웠다. 그 외 부대행사로는 인권·법률 등 각종 상담과 체험행사 및 다양한 전시 부스가 열려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제2회 공공재활의료포럼 열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도입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건강검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한 '제2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3월 24일 오후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장애인 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관련 사업 중 장애인건강검진사업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지난 2월 17일 개최한 제1차 포럼 이후 장애인단체, 학계, 정부 인력 등으로 포럼 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2차 포럼은 이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2013년 '장애인 건강검진 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세진 교수가 '장애인 건강검진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장세진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검진의 문제는 사후 관리가 부재하고, 출장검진이 부실하며 검진기관에서 장애인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대상자 파악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의 구조적

요인과 검사나 진찰과 같은 과정 요인,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적합한 검진 기관의 자격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검진을 하는 의료진이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 안내와 이동 등을 돕는 보조 인력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장비는 상하높이 조절이 가능한 침대를 구비하고, 검사기기 선정 시 장애인이 사용하기 적합한 지지대나 손잡이가 있는 기기를 선정해야 한다. 검사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탈의실 및 화장실이 분리 돼 있어야 하며, 검사 동선에 자동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확



제2회 공공재활의료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보해야 한다.

검사 과정에서는 장애인 검진에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은 검진 과정을 설명하고, 탈의부터 검진 공간으로 이동해서 실제 검진에 이르기까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검진은 원래 검진이 원칙이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출장검진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위와 같은 요건을 마련하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주치의제도와 연계해 주치의가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 주기 등을 각각의 장애 상태에 맞게끔 설계하고, 검진항목을 특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학적 불안감』 북 콘서트

인문학적 접근 통한 사회 변화 기대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이 3월 31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산다미아노 북 카페에서 6번째 번역 기획총서 『미학적 불안감: 장애와 재현의 위기』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인문학적 장애학의 진수로 평가받는 이 책은 서구 사회의 문학 작품 속에서 장애의 이미지가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번역자인 대구대학교 손홍일 교수는 북 콘서트에서 “이 책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인하던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다”며 “미학적 불안감이란 개념을 핵심으로 새로운 의미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책의 저자인 아토 퀘이슨에 따



북 콘서트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르면, 미학적 불안감이란 문학 텍스트에 장애인이 등장하는 경우 미학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것 사이를 오가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는

‘정상적’인 재현을 우회하게 해 불안감을 유발한다.

손 교수는 “이처럼 불안감을 느끼는 우리의 사고를 확인한 후 장애인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북 콘서트의 토론자로 함께 한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는 “이 책은 인문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

회변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평했다.

또 경인교육대학교 우충완 교수는 “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대에 교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았다”며 “특히 가변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닌 장애의 유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역자와 토론자 모두 새로운 접근을 통한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손홍일 교수는 끝으로 “책의 접근 방법이 생소해 다소 낯설 수 있지만, 다양한 장애의 문학적 재현 방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히 읽기를 시도하는 독자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폐인 희망 품은 블루라이트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 점등행사 열려

제9회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하루 전날인 4월 1일 저녁 6시 30분, 장애계의 상징적 건물인 이룸센터에 파란 불빛이 켜졌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이룸센터에 입주한 14개 관련 단체가 주최한 점등 행사는 희망퍼즐 맞추기, 자폐인 사랑 배지 나눔 행사와 ‘블루라이트(Blue Light)’ 점등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을 소망하는 파란 빛이 이룸센터 외관 벽면을 가득 비추자 주위의 행인들까지 발길을 멈춰 파란 빛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다.

점등식에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은 “장애계의 상징적 건물인 이룸센터 입주단체가 함께 자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 더욱 의미 있다”며 다른 명소에서도 대한민국 랜

드마크에 걸맞은 사회공헌 캠페인에 더욱 동참해 주기를 부탁했다.

이어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이병돈 회장은 “파란빛을 비추는 시간은 일 년에 하루 남짓이지만, 자폐성 장애인에게는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매년 4월 2일 세계 자폐인의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블루라이트 점등식.

날에 맞춰 전국 주요 랜드마크에 파란 빛을 밝히는 이 캠페인은 2008년 미국에서 한 자폐성 장애인 청년의 요청에 따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파란 불이 켜진 것을 계기로 글로벌 캠페인으로 퍼졌다. 우리나라는 2013년

부터 시작했다.

올해 블루라이트 캠페인은 여의도 이룸센터를 시작으로 자폐인의 날 당일인 4월 2일 서울 시청, 롯데월드타워, N서울타워 등 전국 주요 명소 11곳에서 이어졌다.

시각장애인, 중국어능력시험 시간 연장

인권위, 5월부터 정규 규정보다 1.2~1.5배 적용

올해 5월부터 중국어능력시험(HSK)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이 정규 규정보다 1.2배에서 1.5배가량 연장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HSK에서 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주관기관에 연장을 요청한 결과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해 12월 시각장애 1급 대학생 권 모 씨의 진정이 접수됐다. 권 씨는 HSK에 응시했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HSK한국사무국이 시각장애인에게 A3 크기의 확대시험지만 제공할 뿐 시간은 연장해주지 않아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능력시험 토익, 토플, 일본어능력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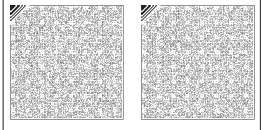
험 등은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HSK한국사무국 측에 위와 같은 사례와 함께 시험시간 연장의 합리적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 같은 요청에 HSK한국사무국 측은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중국 측과 최종 협의의 결과 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

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각 당사국이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해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장애인에게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고용개발원 김정연 교육연수 부장은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활기관은 장애인 이해 및 예방, 교육현장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고용에 맞춰진 교육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뿐 아니라 현행법이 권고에 불과해 인식개선교육을 활성화하기 어렵고, 교육콘텐츠나 전문가 등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문제 제기했다.

이를 해소하고 인식개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무 대상과 제재 사항, 교육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강사교육센터를 통한 강사 인증제 운영, 공무원 연수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 고용 확대 열쇠는 인식개선

장애인공단, 제36차 EDI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장애인의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갖췄다. 현재 이 법을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장애인 고용 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구직 및 취업 장애인 천여 명 중 87.7%가 장애 차별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들은 고용 차별 예방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장애인차별금지제도 홍보 강화’와 ‘법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제와 처벌 강화’를 꼽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개발원은 4월 6일 제36차 EDI정책토론회 ‘장애인고용, 새로운 정책과제와 사회적 인식개선의 확대’를 개최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장애인차별금지제도 홍보 강화



제36차 EDI 정책토론회 전경.

고용개발원 전영환 연구위원은 “장애인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장애인차별금지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장애 차별 예방 가이드나 정당한 편의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이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장애인에게 차별금지

제도를 홍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사업주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장애 차별을 당했을 때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는 가이드뿐 아니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밖에 장애인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 공단의 상담 창구 운영,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지원 확대, 기관 간 연계 강

‘장애인 위주 자회사’ 지원 확대

고용부, 대기업 투자금 75% 지급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기업이 장애인 위주로 채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투자금의 75%를 지원하고, 고용인원도 모기업 고용률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4

월 19일 서울맞춤형훈련센터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을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30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 중 장애인 고용률이 1.5% 미만인 76개 기업을 중점

유도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이끔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008년 제1호인 유베이스유니터를 시작으로 모두 42곳이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대기업의 참여가

낮아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현재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 2.7%보다 크게 낮은 1.9% 수준이다. 민간 기업 평균인 2.55%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해 고용부는 자회사형 장애인사업장 설립 시 지원하는 투자금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설립 초기 장애인 고용 관리 전문가의 활용 비용도 보조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형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모회사 고용 인원에 포함해 장애인 고용률을 산출하고, 이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남부에는 300여 명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한다.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에는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해 반도체, 기계 등 기업 채용 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6000여 개소 대상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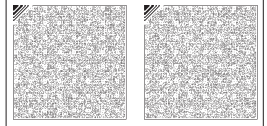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5개소)가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합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타약 1달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세부 내용은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의무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채용시험, 공익민간자격시험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편의제공 기준 및 방법을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로 상세히 마련했다.

또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등록을 상실한 장애인에게 지원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할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일상생활 관련 정보까지 포함한다.

이 외에도 장애등급 심사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동의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장애등록 등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여권용 사진으로 단일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부부 5쌍 백년가약

KBS 강태원복지재단, 합동결혼식 거행



장애인 합동결혼식 기념 촬영.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안양의 한 웨딩홀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50~70대 장애인 부부 다섯 쌍을 위한 합동결혼식이 열렸다.

KBS강태원복지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나래울, 서울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한 결혼식은 KBS 이성민·윤지영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재단의 이세중 이사장이 주례를 맡았다.

이세중 이사장은 “이 자리에선 다섯 쌍의 부부가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오늘의 결혼식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는 주례사로 축복했다. 재단의 김영철 사무국장은 정호승 시인의 ‘봄길’을 축사로 낭송하며 부부의 영원한 사랑을 축원했다. 한편 가수 선경과 정해진의 축가가 이어졌다.

70대인 한 신랑은 “평생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아내에게 미

안했는데 오늘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내의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 부부 다섯 쌍은 강원도 동해안으로 1박 2일간 신혼여행을 떠나 망상해수욕장, 경포아쿠아리움 등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들의 결혼식 뒷이야기는 4월 23일 KBS 1TV ‘사랑의 가족’을 통해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방송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안내 캠페인

©KAPPD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서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협회
Korea Association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지체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센터
ATAC
Inclusive Technical Support Center for The Disabled Etc.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전국 순시

시·도협회 및 시설 방문 소통과 격려



김광환 중앙회장이 4월 14일 강원지장협 순시를 진행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230개 지회와 산하 장애인 복지시설을 돌아보는 순시를 시작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4월 14일 강원도사회복지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홍수, 이하 강원지장협)의 순시를 진행하며 업무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순시에는 강원지장협 시·군지회장과 춘천시장애인 근로사업장 원장, 사무처 직원 등을 포함 20여 명이 참석해 2015년도 사업 결과와 2016년

도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강원지장협 및 시·군지회의 현안에 대해 흥금을 내놓고 소통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순시에서 “지역의 장애인운동이 고르게 성장해야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중앙회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선진적인 장애인복지를 이룩하자”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같은 날 김광환 중앙회장은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순시를 진행했으며, 15일에는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5월까지 전국 순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편의센터 카툰 전시회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고취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센터장 부형중, 이하 제주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4월 4일부터 12일까지 서귀

포 삼매봉도서관에서 카툰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홍보는 총 20종의 카툰을 이젤에 세워 전시하는 방식이었다. 전시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만화로 구성해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고, 사회

일반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의 시설이 아닌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이었다. 이와 함께 잘못 설치한 편의시설로 인해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인식시키고자 했다.

제주센터 측은 “앞으로도 행정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고취하고 인식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목일 맞아 봉사활동

포항시지회 청년후원회 봉사단 다울 모범



포항시지회 청년후원회 다울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이하 포항시지회)의 청년후원회 봉사단인 ‘다울(봉사단장 박정길)’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봉사활동

을 펼쳤다.

다울 회원은 아침 일찍 포항시지회를 찾아 식목일 기념식수를 시작으로 포항시장장애인재활작업장 내 에어컨 설치 및 주변 환

경미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활동이 끝난 뒤 직접 준비해 온 음식을 작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장애인들에게 손수 대접했다.

박정길 청년후원회 봉사단장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을 맞아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지회 청년후원회 봉사단 다울은 2040세대 청년들로 구성된 순수봉사조직이다. 지난 3월 초 출범한 뒤 지역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장장애인재활작업장 개소

김포시지회, 시청과 장애인 자립 지원 합심



결포동에 임시로 마련한 김포시장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지회장 이경규, 이하 김포시지회)는 지역의 경제발전 및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주)진성테크, 김포시청과 손을 맞잡았다.

관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포시장장애인재활작업장을 만들고 3월 28일 문을 열었다.

작업장 개소 3일 뒤인 31일 유영록 김포시장장이 결포동에 임시로 마련한 작업장을 직접 방문했다. 유영록 시장은 “시작은 다소 열악하지만 부족한 점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계자들과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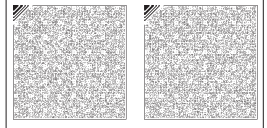
그동안 김포시 관내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경규 지회장은 이런 현실을 시청 공무원에게 널리 알려 지원을 확보했다. 김포시청 경제환경국 이종경 국장 이하 경제진흥과 임산영 과장, 문선영 팀장, 심재웅 팀장 등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작업장의 문을 열게 됐다.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측은 “앞으로 장애인 작업장 사업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작업장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장애인들은 “일을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김포시지회는 작업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김포시청을 비롯하여 민간 기업들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제18회 빛고을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

39팀 접전...제주도 파랑새팀 우승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최남규, 이하 광주지장협)는 4월 7~8일 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에서 제18회 빛고을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지장협과 광주광역시장애인게이트볼연맹이 공동 주관하며, 광주광역시·대한

장애인게이트볼연맹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 14개의 시·도에서 39팀이 참가했다. 선수 390명과 자원봉사자, 진행 요원 등 총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열었다.

매 경기 치열한 접전 끝에 제주도 파랑새팀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어서 경남 김해시팀이 준우승을, 서울 영등포팀과 강원

원주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우승팀에는 상장, 상패와 함께 100만 원, 준우승팀에는 50만 원, 공동 3위는 각각 30만 원을 수여했다.

최남규 협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8회 빛고을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한 내외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지장협-세강병원 의료협정 지장협 회원 및 직원 건강증진 지원



대구지장협과 세강병원이 의료협정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지장협)는 4월 14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세강병원(원장 김장균)과 의료협정을 체결했다.

세강병원은 건강검진 및 소화기 내시경에 최적화된 병원으로, 1984년 개원 이후 30여 년간 지역 주민의 꾸준한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지장협 임직원 및 세강병원 김장균 원장과 직원들이 참여했다. 세강병원 측은 협약식에서 6500여 명에 달하는 대구지장협 회원 및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창환 협회장은 "질병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제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검진 시기를 놓치는 사람이 많다"며 "세강병원에서 장애인 건강을 위해 좋은 지원을 약속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장균 원장은 "지역장애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에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창업선도대학 설명회 열려

군산시지회, 실질적인 창업 연계 프로그램 개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전기수, 이하 군산시지회)는 4월 4일,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창업선도대학 운영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총 사업비 5,100만 원을 투입하는 장애인창업선도대학은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전문적인 창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교육은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술 창업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 창업을 통한 자립



장애인창업선도대학 운영사업 설명회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원광대 창업지원단 김수민 교수와 장일도 교수가 나섰다. 이들은 군산 지역의 장애인에 중심으로 한 아이

디어, 기술 창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기수 지회장은 "그간 장애인에게 단순 반복 재활교육을 시

김천시지회 총선 장애인 이동 지원 리프트 장차 해피콜 차량 등 5대 운영



김천시지회가 원활한 선거를 위해 지역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이하 김천시지회)는 4월 13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지역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해 이동 차량을 지원했다.

이날 김천시지회는 승합차와 리프트를 장착한 해피콜 차량, 슬로프를 장착한 행복콜 차량 등 총 5대를 지원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차량을 '장애인 등 유권자를 위한 교통편의 지원차량'으로 지정해 원활한 이동을 도왔다. 김천시지회는 차량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전 예약한 지역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를 제공했다.

한편 지난 3월 17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관내 투표소 총 50개소 중 임시 경사로 설치 대상 투표소에 대해 선관위 직원과 김천시지회 직원이 합동으로 사전 현장 실측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독려해 투표소 이용에 불편이 없게 조치했다. 박선하 지회장은 "이번 선거에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차량지원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장애로 인해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행하던 방식을 탈피해, 실질적인 창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창업 기회를 확산하고 재할 의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군산시와 원광대학교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교통약자 배려한 우측보행 캠페인

서울지장협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 앞장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의 49.4%가 후천적인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고 원인은 교통사고가 14.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손영호, 이하 서울지장협)가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을 위해 우측보행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우측보행 캠페인은 서울지장협이 우리 생활습관에 맞는 우측보행을 통해 보행자간 충돌을 줄이며,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지난해 11월 11일

보행자의 날부터 시작했다. 이날 서울지장협은 노원역 롯데백화점 사거리 및 은행사거리에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노원구청, 노원경찰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우측보행 홍보와 함께 어린이 횡단보도 안전수칙 배지를 배부하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서울지장협 산하 25개 지회는 서울 지역의 동남, 서남, 서북, 동북 권역별로 연합해 시민이 많이 모이는 거점에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캠페인은 장애인들이 직접 '교통약자를 위해 우측으로 보행합니다', '차량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횡단보

도 우측보행', '자전거 및 오토바이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걸기' 등 교통안전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이루어졌다. 이때마다 장애인들은 수동적인 정부의 복지수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서 지역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당당히 나섰다.

2016년도에도 서울지장협은 홀수달(3, 7, 9, 11월)에 25개 지회가 우측보행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지난 3월 각 지역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지장협 손영호 협회장은



캠페인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가 보행 중 사고를 당한다.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이며, 우측보행 캠페인을 통해 지

체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우측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지장협 여성자립지원센터 보수교육

여성장애인의 현실적 자립 방안 모색



경북지장협 여성자립지원센터 보수교육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 이하 경북지장협)는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안동그랜드호텔에서 1, 2차 여성자립지원센터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노철호 경북본부

장의 '성공리더십을 위한 자기개발' 특강을 진행했다. 또 경상북도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경북여성장복)의 진선하 사무국장이 방편해 여성 장애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선하 사무국장은 "우리 여

성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 개관 예정인 경북여성장복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북지장협은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경북연합회와 장애인 및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관한 MOU를 체결해 소외된 장애인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경북지장협의 김영식 협회장은 "이제는 교육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취업 등 현실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달구벌열정대학 개강

노래교실과 건강교실 성황



달구벌열정대학에서 노래교실이 열리고 있다.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강재형, 이하 달구벌장복)은 4월 5일부터 '달구벌열정대학' 강좌를 시작했다.

달구벌열정대학은 신바람 노래교실과 9988건강교실-건강체조&라인댄스, 크레이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50세 이상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노래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건강교실은 오후 2~3시에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당당한 노후 생활과 자기개발 기회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개강 첫날인 4월 5일부터 노래교실은 60명, 건강교실은 30명이 자리를 메워 즐거움과 건강증진 효과를 동시에 누렸다.

달구벌장복 측은 "달구벌열정대학의 프로그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지역의 많은 어른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관은 지역 어르신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달산 GREEN&CLEAN 캠페인

목포장복,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와 산불예방



캠페인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문호, 이하 목포장복)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4월 2일 '유달산 GREEN&CLEAN 캠페인'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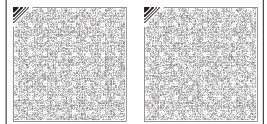
2번째를 맞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유달산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와 산불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4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개최하는 '꽃피는 유달산 축제'를 맞아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목포대학교 약학과 자원봉사

자 9명과 목포장복 임직원 16명은 4개조로 나눠 1등바위, 2등바위, 유달공원, 어민동산 등 유달산 곳곳에서 캠페인을 했다.

목포장복 측은 "앞으로도 유달

산을 찾는 관광객이 쾌적하고 깨끗한 목포의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 '웰하우스'

성남장북, 재가장애인 건강한 환경개선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성남장북)은 3월 25일 위생환경이 열악한 재가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쓰레기 수거와 방역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한 가정환경 개선사업 '웰하우스'

에 성남시내버스(주) 직원 3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쓰레기나 오물 수거, 청소, 정리 등 7시간에 걸친 자원봉사를 통해 재가장애인 가정을 청결한 환경으로 만들었다.

지원을 받은 재가장애인 최 모(정신장애 3급) 씨는 "집이 깨끗

해져 삶의 질이 높아졌다"며 복지관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성남장북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재가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장북과 성남시내버스 직원들의 지원으로 깨끗해진 장애인의 집.

청력의 소중함 일깨워

영천장북-독일보청기 난청예방 앞장



복지관 이용자가 난청상담을 받고 있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근, 이하 영천장북)과 청각재활센터 독일보청기(대표 이동현)는 난청으로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력 검사 및 난청상담, 난청예방교육을 시행했다.

3월 18일 복지관 문화교실에서 시행한 이번 사업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진행했다.

영천장북 이재근 관장은 "난청으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장애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는 6월 17일, 9월 16일, 12월 16일에도 난청예방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독일보청기 이동현 대표는 "한 번 손상된 청력은 회복하기 어려

우므로 정기적인 청력검사와 청각재활, 보청기 사용을 통해 난청을 예방하고 청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난청으로 주변 사람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면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또 난청을 방치하면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최대 5배까지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영천장북과 청각재활센터 독일보청기는 난청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난청예방 서비스와 청능 재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물론, 대상자 선정을 통해 생활이 어려워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천시 난청예방 사업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영천장북 담당자(054-333-3535) 또는 청각재활센터 독일보청기 난청예방지원사업팀(054-334-23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문경장북, 장애인 2가구 맞춤형 자립 지원



문경장북이 부실한 장애인 주택을 수리하고 있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북)이 부실한 주택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장애인 2가구를 선정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문경장북은 문경시 희망복지지원단(단장 김옥희)과 문경시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기관(센터장 박상숙)과 연계해 지붕 누수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 3급 안 모 씨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문경장북은 3월 24일 사업비 30만 원

을 들여 부실한 안 씨의 집 지붕을 수리했다.

한편 문경읍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 임 모 씨는 (사)경북안전생활시민연합회 문경지회(지회장 도기주)의 도움으로 3월 25~26일 집을 정리한 후 도배를 하고 전등을 교체했다.

박종훈 관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책을 바탕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해 장애인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다.

백제의 숨결 따라 박물관 견학

충남남부장북, 첫 번째 문화활동



문화활동 참가자들이 박물관을 견학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남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서현미, 이하 남부장북)은 공주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함께 올해 첫 번째 문화활동 지원을 실시했다.

남부장북 측은 매년 3회에 걸

쳐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애로 인한 이동 제약에 따라 타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해 삶의 여유와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다.

3월 25일 진행한 이번 문화활동은 국립부여박물관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오전에는 백제권 문화재 보존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물관에서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금동관음보살입상(국보 제293호)을 비롯한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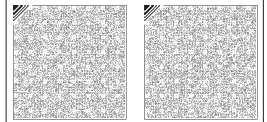
유물을 감상했다.

오후에는 고려인삼의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삼 산업의 역사, 인삼재배·제조 공정을 시각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삼박물관을 견학했다.

문화활동에 참여한 김 모 씨는 "평소 많이 접할 수 없었던 나들이 기회였다"며 "친구들과 함께 지역 문화를 구경하고 즐거웠

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부장북 측은 외부의 문화적 경험에서 다소 소외된 장애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6월과 9월에 진행할 문화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복지관 지역권익옹호팀(041-856-707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산장복, '도전! 인권벨' 개최

19개교 중 · 고등학생 100명 참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퀴즈대회, '도전! 인권벨'이 열렸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지역 19개교 중 · 고등학생 100명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3월 26일, 한울중 · 고등학교 평암관에서 열린 대회는 중부방송 최상희 아나운서와 아산장복 최진영 생활체육교사가 공동 사회로 진행했다. 개그맨 유세윤이 영상으로 대회 개최를 축하했고, 온양문화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라스피'가 축하공연으로 대회

의 열기를 달궜다.

이창호 관장은 대회사를 통해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아산시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회는 KBS '도전! 골든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회의 주요 문제는 장애인 인권, 장애를 극복한 인물, 장애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관련 법률 등이었다. 아산장복 측은 장애인 관련 퀴즈들을 복지관 홈페이지에 40일 동안 공개해 학생들의 사전 준비를 도왔다.

퀴즈를 착실히 준비한 학생이 많아 예상보다 1시간을 초과했지만, 인권벨을 울리지는 못했다. 이 가운데 온양문화고등학교 3학년 유성민 학생이 최후의 1인으로 남아 박수를 받았다. 우승상은 온양여자중학교 유재이, 온양문화고등학교 이시영 학생이 수상했고, 장려상은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이용석 학생 등 4명이 받았다.



'도전! 인권벨'에 참가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최후의 1인 유성민 학생은 "큰 상을 받아 기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장애인 인권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환기 장애학생의 직업 찾기

괴산장복, 전환교육 프로그램 시행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복) 취업지원팀은 관내 고등학교 특수교육생을 대상으로 2016년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괴산장복은 4월 7일 복지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며 성공적인 교육활동을 다짐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정효선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환기에 있는 장애학생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16년 전환교육 프로그램 기념 촬영.

4월부터 11월까지 총 13회기로 진행되는 2016년 전환교육 프로그램은 장애학생의 직업 적응력 및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교육은 일상생활 훈련, 직업교육, 문화 체험, 산업체 견학, 현장 체험, 지역 자원봉사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진천장복, 장애인 특성 배울 기회 제공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복)이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시행했다.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교육과정에서 진천장복은 장애이해교육 방법론과 장애특성 이해, 장애인 예절, 장애체험 등을 포함해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이해교육 강사의 수준을 향상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진천장복은 교육 후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에게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들은 수료증을 받으며 향후 강사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을 다짐했다.

한명수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한 전문강사들이 지역에서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장복,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앞장

홍성로타리클럽, 아세아시멘트와 연계 봉사



홍성로타리클럽이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던 장애인의 집이 쾌적하게 탈바꿈했다.

지난 3월 12일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복천규, 이하 홍성장복)은 홍성로타리클럽과 연계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 4곳에 집수리와 청소를 지원했다. 이들은 각 가정에 도배, 페인트칠, 가구 및 수납장 지원, 전기 수선 등을 지

원해 불편함을 개선했다. 이번 활동은 홍성로타리클럽의 자매클럽인 고양행주로타리클럽에서도 함께 집수리 봉사에 참여해 뜻을 합쳤다.

이어서 홍성장복은 3월 26일 아세아시멘트 홍성공장과 연계해 재가 장애인 가정의 가구 운반 및 수

리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류 수납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 이동 및 설치, 수납 정리, 문고리 수리 등을 지원했다.

홍성장복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마라톤 영웅 이봉주 함께 달린다



지난해 풀마라톤 선수들의 출발 모습.

정상급 별들 출사표

4월 30일 열리는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국제장애인올림픽 육상위원회 공인대회인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세계 정상급 휠체어마라토너들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는 4월 24일 런던마라톤대회와 4월 말에 펼쳐지는 일본 선수권대회, 하반기에 있을 브라질 리우 패럴림픽대회 참가 준비로 인해 지난해 우승자인 마르셀 후크를 비롯해 서울 대회에서 우수한 기록을 달성한 몇몇 선수의 참가가 어려워져 새로운 강자 탄생에 기대감이 쏠린다.

서울 대회에 사전 등록한 선수는 16개국 선수 2331명이다. 한국, 일본, 태국, 몽골, 베트남,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미국, 코스타

리카, 짐바브웨, 가나, 카메룬 등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이다. 이중 세계 최정상급인 풀마라톤 1시간 20분대 선수가 9명이나 출전해 박빙이 예상된다.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일본 Yahoo Japan 소속 호키노우에 코타(Hokinoue Kota)다. 코타 선수는 2012년 제21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우승과 2013년 제22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스타로, 두 번이나 마르셀 후크에게 내주었던 월계관을 이번 대회에서 탈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타는 25세이던 2000년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 재활에 매진하던 그는 2002년 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의 경기를 보고 본격적으로 휠체어육상을 시작했다. 14년간 서울 대회를 비롯한 세계적인 대회에 출전해 좋은 기록을 경신해 온 그의 이

번 대회 목표는 우승이다. 트랙의 세계 왕자로 불리는 마르셀 후크와 막상막하로 경주하다 아쉽게 준우승한 3년 전 서울 대회의 동영상을 다시 보며 모티베이션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드니 르메니에(LEMEUNIER DENIS)도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꼽힌다. 20년간 휠체어마라톤을 해 온 지구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서울 대회에서 톱 5에 들기 위해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또 휠체어마라톤을 시작한 지 7년 된 일본의 사노 준이치로(SANO JUN-ICHIRO) 선수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역시 서울 대회는 처음이지만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기록을 보유한 선수다. 현재 두 아이와 아내, 지인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번 대회 5위 안에 결승점을 통과하겠

는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도 경기력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활동에도 매진하며 장애인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있는 대한민국 육상 간판스타 홍석만 선수를 비롯한 국내 선수 15명도 총출동한다.

휠체어마라톤은 앞바퀴 하나, 뒷바퀴 두 개가 달린 경주용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밀어 달리는 스포츠다. 최상위권 선수들의 속력은 평지 20~30km/h, 내리막 40km~50km/h로 달리며, 1시간 20분대의 기록으로 풀코스(42.195km)를 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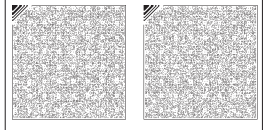
휠체어마라톤은 0.01초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다. 속도 조절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물을 마시는 지점이 없다. 각자 휠체어에 물통을 부착하고, 안전을 위해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코스는 세계 마라토너들이 질주하기에 가장 좋은 코스로 알려져 있다. 2013년에는 아깝게 38초 차이로 세계신기록에 조금 못 미쳤지만, 1시간 20분 52초로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이때를 기점으로 신기록을 기대하는 대회로 한층 성장했다. 올해도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새로운 기록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풀마라톤뿐 아니라 지난해 서울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하프마라톤 우승을 거머쥔 유병훈의 2연패도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 지난해 추가된 전문 핸드사이클 하프(21.0975km) 종목의 경우 지난해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참가자도 늘어남에 따라 기록 향상이 예상된다. 핸드사이클은 일본 선수 2명을 포함한 36

소리로 읽는 새보람



또 쇼트트랙 영웅 김동성과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심권호도 어울림 부문을 함께 뛴다.

그 밖에 지난해 홍보대사로 위촉한 곁길 타히티가 대회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3월 초부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부처,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 측은 대회 개최에 따라 잠실 일대의 교통 통제 구간과 시간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교통 통제 및 대회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홈페이지(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5km 경쟁 부문 출발 모습.

명이 경기를 펼친다.

이봉주, 김동성, 심권호 참여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톱클래스 선수들의 휠체어 레이스 외에도 5km 경쟁 휠체어 부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5km 어울림 부문도 열린다.

5km 경쟁 부문은 전국의 휠체어 선수 300여 명이 출전해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달리며 값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5km 어울림 부문은 장애인과 가족, 함께하고 싶은 모든 시민이 함께 달리는 종목이다. 함께 호흡하며 봄날의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참가자 2천여 명이 달릴 예정이다. 어울림 부문에는 국민마라토너 이봉주가 참가자들과

함께 뛰며 대회를 응원한다.

이봉주는 “함께 뛰며 호흡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마라톤에서 많은 분과 함께 달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코스와 교통통제 안내.



5km 코스.

■ 대회개요

○대회명: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기간: 2016. 4. 27.(수) ~ 4. 30.(토) (3박4일)

※출발식: 4. 30.(토) 07:40~08:00 (서울잠실종합운동장)

※본경기: 4. 30.(토) 08:00~11:00 (서울잠실종합운동장~성남일대)

○개최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라톤코스(공인코스)

○참가규모: 16개 국 17,000명(선수 5,000명, 임원·자원봉사자 등)

○대회종목: 풀(42.195km)/ 하프(21.0975km)/ 핸드사이클 하프/ 5km(경쟁)/ 5km어울림(비경쟁)

○주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선맹

○주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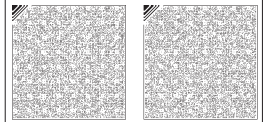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협찬: 신한금융그룹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식음료: 포카리스웨트

소리로 읽는 새보람



최첨단 의료 재활기기 전시 'KIMES 2016'

미국, 독일, 일본 등 국내외 1152개사 참여...7만여 명 참관

제32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6)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COEX 전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KIMES 2016에는 내국인과 해외바이어를 포함해 총 7만 3천여 명이 참관했다. 특히 의료 관련 대학 등도 참관해 산학 관계의 정보 교류에 크게 기여했다.

KIMES 2016에서는 548개사의 국내 제조업체를 비롯해 미국 107개사, 중국 139개사, 독일 75개사, 일본 64개사, 대만 43개사, 스위스 25개사, 이탈리아 19개사 등 37개국 1152개사가 참가해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 관련 용품 등 3만여 점을 전시했다.

영상진단장비사 참가 기업은 삼성전자/삼성메디슨, DK메디칼시스템, 리스텔, 제이더블유메디칼, 메디엔인터내셔널, 알피니엔메디칼시스템, SG헬스케어 등



KIMES 2016 테이프 커팅식.

은 물론 GE Healthcare, Philips, Toshiba Medical, Shimadzu, Fuji Film, Wego 등 세계적 기업이 주를 이뤘다.

헬스케어는 자원메디칼, 인바디, 소독기의 한신메디칼, 의료정보의 비트컴퓨터, 약품 포장기를 생산하는 JVM, 물리치료기의 대성마리프, 스트라텍, 레이저치료기의 루트로닉, 의료용품의 인성메디칼 등 국내외 대표적인 기업이 참가했다.

전시 분야는 진찰 및 진단용기기 198개사, 임상·검사용기

기 73개사, 방사선 관련기기 83개사, 수술 관련기기 167개사, 치료 관련기기 131개사, 재활의학·물리치료기기 202개사, 안과기기 25개사, 치과관련기기 28개사, 중앙공급실 장비 38개사, 병원설비 및 응급장비 128개사, 의료정보시스템 30개사, 한방기기 13개사, 피부미용 및 건강관련기기 244개사 등이 참가했다. 그밖에 제약, 의료부품, 의료서비스, 의료용품 등 의료 관련 제품이 골고루 출품됐다.

최신 정보 교류의 장

KIMES 기간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플라자(이하 GBMP)'가 연계 개최됐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GBMP는 코트라가 주관하는 의료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융복합 상담 설명회로 COEX 3층 Hall E에서 진행됐다.

의료분야 해외 진출 1:1 상담회와 해외병원프로젝트 발주처 초청 상담회, 제약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해외의료기기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등 의료바이오 분야의 국내 업체 200개사와 해

외 바이어/발주처 100개사가 함께했다.

전시회 기간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의료산업 정책세미나, 의료인을 위한 특별강좌, 의료산업 및 의학술 세미나를 비롯해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서울시 물리치료사회 학술대회 등을 진행해 전문의 및 의료 관계인에게 수준 높은 의료 정보를 제공했다.

국내 지자체에서는 원주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구시, 구미시, 부산시 등에서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했으며, 해외국가관은 미국, 중국, 대만,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이 참가해 국가별로 특화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한국이엔엑스는 국내 의료 관련 최대 전시회로서 관련 학과의 후진 양성인 인재 발굴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KIMES 장학생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의공학부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100%~90% 국비지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

INDIE FOOT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국비 보조 맞춤형 교정용신발 제작
✓ 국비지원 대상자 : 1층, 2층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대상자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란?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가 정형외과적 변형이나 신장학적 질환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보장구 중 러저보조기의 한종류로 보행개선을 위하여 전문의사의 처방사항 및 맞춤제작을 원칙으로 제작되는 신발입니다.

대표번호
031-758-1808

INDIE FOOT Orthopedic Shoes

WTL
0102

WDHS
0112 / 0111.2

WDHS
0112 / 0111.2

WDHS
0112 / 0111.2

PTM
0112 / 0111.2 / 0102

GBL
0112 / 0111.2 / 0102

GBL
0112 / 0111.2 / 0102

GBS
0112 / 0111.2 / 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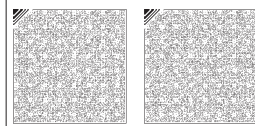
GBS
0112 / 0111.2 / 0102

GBS
0112 / 0111.2 / 0102

인디풋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90번길 10 (복정동)
Tel. 031-758-1808 Fax. 031-756-1808 E-mail if@indiefoot.com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의지·보조기
* 프리미엄 안솔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제2회 장애인문화의 날 기념식

희망의 문화예술도구 나눔운동 출범

제2회 장애인문화의 날 기념식이 4월 16일 오전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후원한 이날 기념식은 장애인 문화예술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문화의 날 행사조직위원회는 지난해 4월 18일, 문화가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리며 장애인문화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조직위 측은 이날을 기반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높여 장애인문화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기념일 제정 의미를 밝혔다.

이음센터 5층 스튜디오에서 열린 기념식은 빛소리 중창단원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고, 박



제2회 장애인문화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마루 서울시의원이 사회자로 나섰다.

기념식을 개최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종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장애인문화의 날 행사에 장애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

하길 바란다”며 “장애인이 더 이상 문화의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방귀희 회장은 “복지

와 문화가 함께 갈 때 국민이 진정한 행복할 수 있다”며 문화와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했다.

또 기념식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악기 등 문화예

술도구를 후원하는 ‘희망의 문화예술도구 나눔운동본부’ 출범식을 거행했다.

나눔운동본부장에는 아울컴퍼니 서경수 대표를, 홍보대사에는 배우 겸 아울그룹 대표인 정준호 씨를 위촉했다. 나눔운동본부는 문화예술도구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와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정준호 씨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넓히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나눔운동본부의 악기 수혜자인 장애인 김지희 씨가 기타연주를 하며 본격적인 운동 시작을 축하했다.

출범식 후 이음센터 앞마당에는 정준호 홍보대사의 팬사인회와 다트·캐리커처 체험, 가훈 써주기 등의 부대행사가 열렸다.

장애 편견 녹인 환상의 하모니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연주회 ‘이음’

지난 4월 16일, 서울 강남구 장천홀에서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이하 휠체어합창단)이 첫 공연을 펼쳤다. 지난 2월 창단한 휠체어합창단은 지휘자와 단원 모두 휠체어를 탄 장애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폐활량이 작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부단히 노력했고, 마침내 첫 무대에 올랐다.

합창단의 상임지휘자인 정상

일 세한대 실용음악과 교수는 2012년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하지만 그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지휘봉을 잡았다. 휠체어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한 CSI퓨전오케스트라도 정상일 교수가 2014년 결성했다.

음악회에서 정상일 교수는 지휘봉을 잡고 먼저 CSI퓨전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이끌었다. CSI퓨전오케스트라는 ‘축제’, ‘산

체스의 아이들’, ‘락아리랑’, ‘아리랑환타지’를 신명나게 연주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어서 테너 전영호 씨가 ‘My way’를, 소프라노 조우리 씨가 ‘넬라판타지아’를 부르며 휠체어합창단의 희망찬 첫걸음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무대의 주인공인 휠체어합창단이 ‘아름다운 나라’, ‘홀로아리랑’, ‘장애인의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노래’를 부르며 희망의 하모니를 퍼트렸다. 특히 피날레를 장식한 ‘장애인의 노래’는 정상일 교수가 작사·작곡한 작품으로, 합창단원과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어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비록 조금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다. 안 될 것도 못 할 것도 없다. (중략) 우리는 하나. 두 손 맞잡고 같이 가자.”

노래로 세상에 진심을 전한 휠체어합창단에 관객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충남장애인체육회가 아산스마트라이노 아이스슬레이지하키팀에 우수팀 증서를 수여했다.

아산스마트라이노 충남 우수팀 선정

충남장애인체육회, 아산장복에 우수팀 증서 수여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이 운영하는 충남 유일의 장애인아이스하키팀인 ‘아산스마트라이노 아이스슬레이지하키팀’이 2016 충청남도 장애인 우수팀으로 선정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우수팀 증서’를 받았다.

아산스마트라이노 아이스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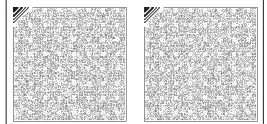
레이지하키팀은 아산장복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아이스하키팀으로 2013년 1월 창단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제1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3위에 올라 충남의 동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우수팀 증서는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이 전달 받았으며, 10개월간 충남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창호 관장은 “지원금은 아산스마트라이노 아이스슬레이지하키팀의 발전을 위한 선수 발굴 및 훈련, 선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아이스하키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27년 만의 바이올린 연주

‘최첨단 마음 읽기’ 기술 통해 재기

영국에서 사고 후 27년 만에 바이올린 연주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로즈메리 존슨의 이야기다.

17살 때부터 웨일스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할 만큼 우수한 실력의 소유자였던 존슨은 1988년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그녀는 심각한 머리 부상으로 7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 깨어난 후 더 이상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었다. 언어와 운동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전도유망했던 한 바이올리니스트는 꿈을 잃었

고, 누구도 그녀의 재기를 기대하지 못했다.

존슨의 연주를 되살린 것은 ‘최첨단 마음 읽기’라는 기술이다. 영국의 플리머스대학은 로열 왕립병원과 협력해 10년째 신경 정신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오랜 연구 끝에 존슨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고, 그녀의 신경 활동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존슨은 두뇌에서 전기적 신호를 읽는 뇌파 모자를 착용한 채 음악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훌륭한 연주를 해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음악가들

과 현악 사중주를 협연하기도 했다.

이 신기술을 이용하면 두뇌가 손상된 장애인도 단순히 다른 색깔의 조명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통해서 연주할 곡을 선택하고 그 곡의 구성을 변형할 수 있다. 또 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면 음악의 볼륨과 박자까지 변형할 수 있다.

플리머스대학의 에두아르두 미란다 교수는 “존슨의 연주는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다시 연주하게 된 그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7년 만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로즈메리 존슨. ©Tim Grabham/Plymouth University



2015 뉴 타이베이 시티컵 휠체어댄스스포츠대회. ©IPC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스포츠아시아선수권대회가 처음으로 휠체어댄스스포츠 아시아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타이베이에서 펼쳐지는 휠체어댄스 향연

2016 IPC 휠체어댄스스포츠 아시아선수권대회 열려

올해 11월 5~6일로 1박2일간의 일정을 확정된 이번 대회는 지난해 뉴 타이베이 시티컵 휠체어댄스스포츠대회가 열린 산중종합체육관에서 막을 올린다. 듀오 및 싱글, 라틴 아메리카 및 프리스타일 등의 전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7개국 약 60여 명의 댄서가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측은 “새로운 개최국을 선택한 2016년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스포츠 역사의 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최고 경영자인 자비에르 곤살레스는 “휠체어댄스스포츠는 2013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이래 아시아를 필두로 전 세계에

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시아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만 장애인올림픽위원회 회장인 라이 포환은 “타이베이에서 아시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역사상 놀라운 순간을 준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타미힐피거, 장애 아동 컬렉션 론칭

장애인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디자인

미국의 의류 브랜드 ‘타미힐피거’가 장애 아동을 위한 컬렉션을 론칭했다. 타미힐피거는 최근 장애 아동을 위한 의류를 만드는 비영리기관 ‘런웨이 오브 드림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장애 아동 의류 라인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런웨이 오브 드림스는 패션 디자이너면서 근육위축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민디 사이어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사이어가 이 같은 특별한 디자인을 하게 된 계기는 올리버가 8살 때 청바지를 사달라고 조르면서부터다.

당시 올리버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청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고, 자신도 청바지를 사달라고 했다. 그러나 버튼과 지퍼가 달린 옷은 근육장애인인 올리버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금속 다리보호 기구를 착용한 채로 청바지를 입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그러나 사이어는 올리버가 입고 싶어 하는 청바지를 입고 싶었다. 그녀는 올리버가 자신감 있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사이어는 곰곰이 생각한 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옷을 입

을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후 사이어는 주류 패션으로 대중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장애인이 입을 수 있도록 변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트렌디한 디자인 제품을 두고 어느 브랜드와 협력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다. 사이어는 여러 브랜드를 두고 고민한 결과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타미힐피거를 선택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장애 아동 컬렉션은 총 22종으로, 타미힐피거의 기존 아동복과 동일한 디자



장애 아동이 타미힐피거의 의류를 입고 있다. ©Tammy Hilfiger

인을 적용했다. 다만 장애인이 착용하고 활동하기 편하도록 일부를 변형했다. 소매와 바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모든 옷에 버튼과 지퍼를 제거하고 자석과 벨크로로 대체했다. 옷을 입고 벗기 쉽도록 셔츠 뒤편을 완전 개방형으로 바꿨다.

올리버는 “청바지를 입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이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사이어는 장애인을 위한 의류사업을 확장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장애인 편의시설 견학

장애인 편의시설 선진지 싱가포르의 현주소는

—— 지체장애인편의시설대구지원센터 김창환 센터장

단순 편의시설 아닌 자활 중심

지난 3월 말, 4박 5일 일정으로 지체장애인편의시설대구지원센터 임직원 5명은 싱가포르로 '장애인 편의시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먼저 복지시설인 '신체장애자협회(Handicaps Welfare Association)'와 '재활센터(Rehab Centre)' 두 곳을 방문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견학을 했다.

한국의 복지시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건물 내 편의시설에만 관심을 갖고 단순히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건물의 편의시설보다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다.

먼저 '신체장애자협회'의 리프트 차량은 한국 차량과는 달리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뒷좌석에 마주한 채 탑승하도록 설계해 있었다. 참고로 한국의 리프트 차량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합차 맨 뒷자리에 올라 비장애인 좌석 뒤에 별도로 떨어져 탑승해야 한다.

그리고 '재활센터'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과태료 액수와 신고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하단에는 표지판을 또 하나 설치해 그림과 함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는 안내 문구를 써 놓았다. 비장애인이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화장실과 경사로의 배려

방문지의 주출입구 접근로 트랜치의 경우, 구멍 간격을 좁게(2cm 미만)하여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했으며, 바닥 마감은 자연석임에도 불구하고 평탄하게 마감하여 휠체어가 기울아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화장실이나 다목적화장실이 곳곳에 설치돼 있어 어느 곳에서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이는 '건물 내 1개 이상의 남·여 구분된 장애

인 이용 가능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과 비교된다. 게다가 화장실의 내부 바닥 크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어 휠체어가 이동하기 수월했다. 하지만 대변기의 수직·수평 손잡이는 화장실마다 다르게 설치해 아쉬운 점도 있었다.

방문지 중 '머라이언공원'의 특징은 접근로 계단 위를 가로지르는 경사면을 두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별도의 경사로 이용을 위해 돌아갈 필요 없이 계단 사이 경사로를 이용해 건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였다. 다만 계단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인 다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몽버드파크'는 관람차 내부에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해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직원이 신속히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한 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왔다. 외부 관람석 곳곳에는 장애인관람석과 동반자석이 나란히 있어 장애인

과 동반자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장애인 관람석 바닥은 눈에 잘 띄도록 황색으로 표시했다.

다만 사찰이나 고궁과 같은 유적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한국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적지를 제외하면 관광지나 쇼핑몰, 소규모 음식점까지도 장애인 편의시설과 함께 다목적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 영유아와 여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동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넘어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건축주나 설계사무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규제로 생각하며 최소한의 설치만 고려하고 있다.

이렇듯 최소한의 규정만을 적용하려는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는 편의시설을 비롯한 작은 것에서도 장애인을 배려하려는



부분이 많이 느껴졌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장실의 내부 크기는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견학을 마치면서 싱가포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본보기 삼아 우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임직원 모두가 법규에 의거한 수동적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회활동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리프트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휠체어 관람석과 동반자석



관람차 내 휠체어 좌석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6연패 달성

한국, 통산 7번째 종합우승 위업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대만, 중국 등의 강력한 견제를 물리치고 통산 7번째 종합우승, 대회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35개국 510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총 48개 직종 중 39개 직종에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대회 초반

우리 선수단은 8시간의 시차와 24시간의 여정으로 인해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컨디션 난조를 보였으나 점차 적응해갔다. 참가국 간의 치열한 경쟁과 견제 속에서도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기능 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쳤다. 이어서 대만이 2위, 중국이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처

음으로 도입된 컴퓨터정보통신, 웅집, 미용, 안경제작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컴퓨터정보통신 직종은 현지에서 대회과제가 변경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선수와 지도위원, 통역요원 등이 빠르게 전략을 수립해 실전에 임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또 목공예 직종은 4회 대회부터 9회 대회까지 연이어 금메달을 따내면서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다.

한국 선수단장인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주최국을 비롯한 참가국의 견제 등 모든 여건이 어려웠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노력해 우승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는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에 시작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연합'에서 장애인 기능 개발

을 촉진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번 참가해 7차례 우승을 달성했다.

정부는 대회 금·은·동메달 수상자에게 상금 및 훈·포장을 수여하고,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직업기능직종 입상자에게는 입상 차기년도부터 20년간 기능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신청은 장고협 홈페이지(www.kesad.or.kr)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장고협 시·도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대회 금상 입상자에게는 상금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을 수여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실기 시험이 면제된다. 직종별 금상 입상자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016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장고협, 34개 직종...4월 29일까지 접수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가 4월 29일까지 '2016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21회째 맞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17개 시·도에

서 펼쳐진다. 대회 직종은 정규직종 20개, 시범직종 12개, 레저 및 생활기술직종 2개 등 총 34개다. 올해 대회에는 바리스타와 워드프로세서를 시범직종으로 신설했다.

대회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워드프로세서 직종에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점역교정·영어번역 직종에는 1~3급 시각장애인, 그림·e-스포츠 직종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중증



‘2016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포스터.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퀴즈

1.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장소는?
2. 최근 대구대 손훈일 교수가 번역한 아토 케이슨의 이 저서는 서구 사회의 문학 작품 속에서 장애의 이미지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무엇일까?
3.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독자의견

3면에 게재한 2016년 장애인당사자총선대의 7가지 공약이 모두 반영되기를 기원합니다. -김기창

새보람을 통해 중요한 장애인 뉴스를 접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장애인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전달해주는 새보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숙희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비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점에 보기도 좋고 인식전환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심보배

응모요령

응모요령: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지원센터 대외협력부 / 이메일: news@kappd.or.kr〉

※주소와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정답

정치세력화
4월 30일

당첨자

서울 노원구 김기창
강원 동해시 조숙희
심보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작업장
가브리엘 작업장



“천연비누세트, 답례품, OEM”

필요한 제품 주문해 주세요.
소중한 사업에게 하는 선물·행사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문구/이미지 예쁘게 넣어 드립니다.
믿고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장은 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기업입니다.”



가브리엘천연비누 1구 가브리엘천연비누 3구 가브리엘천연비누 4구 일체품(주조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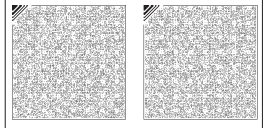
Tel. 02-951-9707 Fax. 02-951-9708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4라길 04-13

<http://www.gabrielcenter.or.kr>

민원상담 /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보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한쪽 눈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확대 불분명



Q) 한쪽 눈 장애인의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A) 한쪽 눈 장애인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여러 해에 걸쳐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인권위

원회가 경찰청에 더 이상 시각장애가 진행되지 않는 한쪽 눈 장애인에 한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후 경찰청은 이 권고를 일부 수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측은 한쪽 눈 장애인의 1종 보통면허 취득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Q) 법 개정이 통과되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A) 현 도로교통법은 '한쪽 눈 장애인들에 대해 2종 보통 운전

면허만 허용하고 있어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등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쪽 눈 장애인에 대해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5월 29일 회기 종료로 앞두고 있어 사실상 폐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 일자리나 업무활동 확대가 불분명한 상황이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Q) 향후 어떻게 되나요?

A) 제19대 국회 회기만료 전에 임시국회가 개최되어 통과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2016년 5월 30일 이후 제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안전행정상임위원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다시 전달해 재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 장애인의 직업선택 폭이 넓어질길 학수고대합니다.

Q) 그 밖에 장애인 운전면허 교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국립재활원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교육(기능 및 도로주행) 및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적응교육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은 장애등급 1~4급(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6급 포함)의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범사업으로 장애등급 5~6급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장애인이 국립재활원까지 내원하지 않아도 운전교육 전문 강사가 특수차량을 가지고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운전교육은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로 전화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가브리엘작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시식
품드래

“천연비누세트, 답례품, OEM”

필요한 제품 주문해 주세요.

원하시는 문구/이미지 예쁘게 넣어 드립니다.



가브리엘천연비누 1구



가브리엘천연비누 3구



가브리엘천연비누 4구



답례품(주문제작)

구입 및 문의처 02-951-9707(팩스 351-9708)

홈페이지 www.gabrielcenter.co.kr

쇼핑몰 www.goods.go.kr

장애를 정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장애학'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설지원부 이준환 대리

우리나라에서 장애 문제를 다루는 학과는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재활의학에 국한돼 있다. 이들 학문은 장애인을 의료적으로 제약 받는 자 또는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특정 존재로만 분류하고 있어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러한 사회 배경에서 최근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의 시선을 바탕으로 한 '장애학' 연구가 시작됐다. 이번 기획 기사에서는 장애학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그 등장 배경부터 발전 과정과 국내 동향까지 다루며 장애학의 전망을 이야기해 본다.

의료적 모델보다 사회적 모델

장애학이란 무엇일까? 질(Gill)은 "장애학은 의료적 모델보다는 사회적 모델에 가까우며, 사회적 모델이 발전하여 나타난 학문 분야"라고 정의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장애를 규정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 등을 탐구하며,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학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학자마다 규정하기에 따라 다르고,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어사전에도 존재하지 않고,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틀린 맞춤법으로 표시될 정도로 일반화되지 않은 학문이다. 그만큼 연구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197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

장애학 등장의 배경이 되는 장애인운동은 1970년대 초 영국과



지난해 진행한 한국장애학회의 창립 학술대회.

미국에서 일어났다.

영국에서는 '분리 저항하는 신체장애인연합'과 '장애인소속보장 그룹'의 운동으로 시작했다. 특히 분리 반대, 빈곤, 주거, 사회통합, 소득보장 같은 정치적 주장에 초점을 맞췄다.

영국에서 초기 장애학은 기존 학문 영역의 저항을 받았다. 학문적 독립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견고한 벽을 뚫고 1975년 오픈 대학교에서 영국 최초의 장애학과정을 개설해 교육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개강한 첫해, 대학 측은 입학 장벽을 낮춰 1000명 이상의 학생 참여를 이끌어냈다. 1994년 폐지 전까지 수많은 학생과 장애인이 강좌를 수강했다. 현재는 가장 권위 있는 리즈대학교에서 장애학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학 연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장애학 이슈를 다루는 국제적 저널도 창간했다. 1986년 『장애와 사회적 분리』, 1994년 『장애와 사회』를 창간해 꾸준히 장애 이슈를 공론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학의 시작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1960년대 미국의 인권운동인 흑인의 인권운동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당시 불평등에 맞서 싸운 인권운동은 흑인을 둘러싼 운동이었지, 장애인 인권은 아니었다. 인권운동이 장애인의 인권을 담보하지는 못했지만, 흑인 인권운동을 바라보면서 장애계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장애인도 인권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서서히 쌓였고, 이와 함께 흑인 인권운동의 운동 방식을 장애인들이 배우게 되었다는 점이다.

장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970년 후반 장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다. 장애학이 빠르게 성장하며 국가적 지원을 요구하자, 백악관 컨퍼런스에서는 1977년 최초의 장애학과정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은 공식적으로 의료사회학 영역의 장애학 연구를 발전시켰다. 1981년 미국에서도 장애학을 다룬 계간지 『장애학』을 창간했고, 1982년 국립장애 및 재활연구소의 강력한 지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미국 장애학의 특징은 영국과 다르게 자립생활, 인권, 교통수단 접근성 같은 개인적 사회 참여 관련한 쟁점이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운동의 원동력으로 마침내 1990년 미국 장애인법과 같은 획기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

일본 장애학 탈가족 자립에 집중

장애학과 장애인운동이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은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학문과 운동 간의 접점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다.

물론 1970년대에 일어난 일본의 탈가족운동이 장애학과 전혀 연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학문적인 직접적인 연계는 없었고, 몇몇 개인 연구가가 장애인운동에 합류하는 개인적 연계에 머물렀다.

일본이 장애학적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며, 장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장애인운동 안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도입하면서부터 시작했다. 그런데도 일본 장애학의 내용은 영국이나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일본 장애인운동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탈부모, 탈가족운동은 동양의 가족주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 핵심으로 현실적인 장애인 자립에 중요한 비중을 두었다.

한국장애학의 지향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에 관한 학문 역시 홀대받아 왔다. 장

애와 장애인에 관한 주제는 모든 학문에서 두루 활발하게 다룬 적이 없으며, 다뤘다 하더라도 특정인에 의한 특정분야에서였다. 문학이든 영화든 장애인은 특정 소수자로 그려졌다.

여기서 장애인은 감정과 의지가 있는 개인이라기보다는 관찰 대상일 때가 더 많았다. 장애인의 목소리는 그저 비정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수정하고 치료해야 할 발언으로 치부됐다. 장애는 대체로 비장애인의 경험을 통해 묘사됐으며, 어느덧 장애인에게도 내면화되어 자신을 바라볼 때 비장애인의 잣대로 '완전한 육체'라는 허상을 그리도록 초래했다. 따라서 장애인은 교정할 수 없는 자신의 육체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을 그저 시혜의 대상으로 보던 차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눈으로, 다양한 삶의 실존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론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장애학이 대두됐다. 장애학은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의 눈으로 장애를 수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기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계와 학계의 활발한 논의 속에서 지난해 5월 22일 한국장애학회가 탄생했다. 한국에서 장애학이 학문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한국장애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장애학회에 바라는 것은 장애학에 '신체 작용'이라는 핵심 이슈를 적절히 다뤄 장애에 대한 신체적 손실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또 장애인의 가족 또한 장애인 못지않게 여러 형태의 장애 차별을 경험하고 있지만 장애인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장애학 내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싶다.

앞으로 장애운동과 장애학이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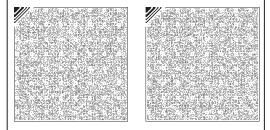
김도현,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2009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2014 장애학 아카데미』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74호 2016년 4월 25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장협은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좋은 모델”

—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장애인당사자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멤버로 장애인복지에 입문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을 만났다. 그가 장애인운동에 뛰어든 계기부터 장애인당사자주의 도입과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Q.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초창기 멤버로 장애인복지에 입문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A. 1982년 고려대학교에 다닐 당시 나는 운동권 학생이었고, 사회 변혁을 위해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가까운 홍익대학교 도서관에 들렀다 교문을 나서려는데 한 학생이 ‘대학정립단’을 아느냐며 집회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립회관을 찾아가는데 장애인이 100명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전부 나보다 중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으로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생존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삶의 애환을 토로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대학정립단 안에 연구부를 만들고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로 ‘장애인 권리선언서’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이후 1984년 9월 19일 장애인 김순석 씨가 서울시장 앞으로 거리에 턱을 얹에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39세였던 그는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 우리의 삶 땅은 어디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는데 사회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우리 대학정립단은 이 사건을 이슈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국을 돌며 위령제를 치렀습니다. 특히 88장애인올림픽예선전이 열린 정립회관 옆에서 위령제를 열었을 때는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권이혁 교육부장관이나 이세기 의원 등을 립픽조직위 관계자들 앞에서 당당히 장애인에게 불리한 물리적 제약을 이야기하며,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촉구했습니다.

그 후 나는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국회에 들어가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장애인고용공단 설립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며, 설립 멤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Q. 지장협과는 어떻게 만났나요?

A. 1990년대 초반, 정립회관에서 故 장기철 초대회장을 만나면서 직접적인 인



이성규 이사장.

연이 시작됐습니다. 장기철 회장은 열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조직을 결성해서 힘을 모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장협의 발전을 위해 외적인 팽창뿐 아니라 회원들의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원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 더 인정받고 강한 조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기철 회장은 전적으로 동의했고, 우리는 그렇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Q. 장기철 회장은 생전에 ‘장애인당사자주의’를 강조하며 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매진했습니다. 두 분이 이 부분에 잘 통했던 것 같은데요?

A. 일본의 어느 만화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좁쌀 반쪽이 필요한 병아리인데 어떤 사람은 내게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내게 금명여리를 던진다. 그런데 맞아죽긴 마찬가지다.”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지, 필요 없는 것은 금이라고 해도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먼저 당사자에게 묻고 이를 전문가가 보완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영국에서 공부할 때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선구적으로 연구한 마이클 올리버 교수와 교류가 깊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애인당사자주의에 관한 이론을 빠르게 이해했고, 제일 먼저 한국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철 회장님과 만나 ‘사회적 장애인론’을 정립한 올리

버의 이론을 소개하며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회장은 반색하며 이를 받아들이고, 지장협 회원과 장애계에 큰 목소리로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외쳤습니다.

Q.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지장협의 의회정치대학에 힘을 보탤까요?

A. 지장협이 1998년 의회정치대학을 만든 것도 당사자주의와 연결됩니다. 장애인당사자의 수준이 높아져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죠. 의회정치대학을 만들 때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장기철 회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고, 내가 직접 강의도 했습니다.

나는 강의할 때 장애인당사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열의 있는 수강생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기도 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등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Q. 장기철 회장님이 계시던 시기, 지장협 이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이때의 활동은 어떠셨나요?

A. 난 전문가이자 당사자로서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장협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방향성을 잡고자 노력했고, 인사위원으로서 객관성을 부여한 인사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시·도협회장을 선임할 때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했는지에 무게를 뒀습니다. 현재 김광환 중앙회장님도 클린 지장협을 선언하고 도덕성을 중요한 지향점으로 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지향이 지장협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Q. 지장협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까. 지난 세월, 장애인복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A. 지장협은 장애인 중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당사자들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고, 지역에 탄탄하게 뿌리내리며 발전해 왔습니다. 일종의 장애인단체 발전의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장협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까지도 포함해 장애인계를 리드하는 최대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장애인들이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사회에 제시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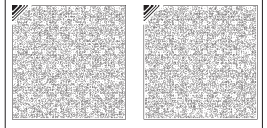


1999년 의회정치대학에서 강의하는 모습.

장애계인사이드

태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종만 관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소신 있는 가치관이 운명을 바꾼다



우리는 살다 보면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 결정의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과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

라 결정해야 하는 일이 훨씬 많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이든 일상적인 순간이든 무엇이든 결정하게 되는 개인의 판단을 가치관이라고 한다.

앞에 언급한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내 믿음이 곧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가치관이 되고 결국 가치관은 운명이 된다는 명언을 남겼다. 간디의 명언은 한 사람의 운명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생각’, 즉 가치 판단의 기준인 가치관 형성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 온 습관이 입으로 표현되는 말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본다면 그 옛날부터 조상들이 흔히 하던 말인 “사람을 보려면 몇 마디 대화만 나누어 봐도 알 수 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내가 누군가의 질문이나 대화 속에서 하는 말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본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치관에 따라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누군가 나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하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대화나 그

사람에 속한 곳에서 내가 특정 행동을 세 번 정도는 표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득을 볼 때도 있지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도매금으로 묶여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이처럼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간디의 명언을 되새겨 보자. 믿음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독서, 그리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책 속에 모든 진리가 숨어 있다’는 성현의 말을 기억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길 권하고 싶다. 물론 문명의 발달은 사람들이 굳이 책을 읽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와 판단 기준을 마련하게 돕지만, 그래도 책 읽기가 주는 감동이나 깨달음은 그 깊이가 다르다.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서 가정과 일터의 책꽂이에 있는 책을 꺼내 읽어 보기를 권한다. 삶의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할 것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표현되면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고, 늦은 듯해도 나의 새로운 운명을 찾아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상처 받고 자아를 상실한 채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서가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소신 있는 가치관 형성에 실마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통해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남의 경험과 지혜를 빌려 자신의 살 길을 그려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우리가 학문과 인격을 동시에 갖추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당신의 믿음은 곧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은 곧 당신이 내뱉는 말이 되고,
당신이 내뱉는 말은 곧 당신의 행동이 되고,
당신의 행동은 곧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은 곧 당신의 가치관이 되고,
당신의 가치관은 곧 당신의 운명이 된다.”

—마하트마 간디 명언 중에서—

현장의 눈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연화 사무국장



근래에 우리사회의 화두는 소통과 배려, 관심이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뉴스나 신문에서 접하게 되는 불편하고 안타까운 현실은 여전한 것 같다. 오히려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듯하다.

지난 3월 2일 우리 복지관은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고객들과 직원들이 함께 ‘같이 걷는 길, 가치있는 길’이라는 모토아래 사회공헌활동을 진

행했다.

인강원 식당의 녹슨 바닥을 닦고, 식탁과 의자의 목은 먼지를 털어냈다. 벽면을 깨끗하게 페인트칠 하고 장애인 작가들의 그림도 걸었다. 이곳에서 맛있고 행복하게 식사를 하게 될 시설거주민들을 떠올리며 힘들지만 행복하게 활동했다.

“(중도)장애인인 이 이후 도움만 받던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던 장애인 고객 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타인에게, 넓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러한 작은 경험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계기가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우리 직원들 또한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힘든 일을 겪은 인강원 거주인 분들과 시설에서 열심히 일하는 실무자들을 위로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음에 반성하기도 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중략)

그들이 유대인들을 끌고 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나치시대의 마르틴 니뮐러 목사는 <그들이 왔을 때>라는 시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무관심할 때 결국 그 무관심과 외면이 내게 똑같이 돌아올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무관심과 외면을 받고 싶진 않을 것이다. 배려 받고 싶고, 관심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기대한다.

배려[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

서 보살피고 도와줌]와 관심[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 모두 마음을 주고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을 것이다. 가치있는 삶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관심을 필요한 지역 문제에 다가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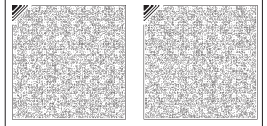
‘인강원’은 지속적으로 상습적인 시설거주민 인권유린 및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해 운영법인 대표 등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문제가 있었던 운영진을 모두 교체하고 현재는 ‘함께 사는 사회,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우리 복지관의 고객과 직원들은 지역주민인 인강원의 발걸음에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가치있는 삶을 위한 동행을 시작했다.

복지마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4·13 총선이 장애인계에 시사하는 바를 고민하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고 어부지리(漁父之利)일 뿐이며 물아치기에 대한 유권자인 국민의 절묘한 표심의 배합으로 이루어진 선거권 행사였다.

4월 13일에 치러진 제20대 총선 결과는 대의제의 비례성 상실과 공천의 민주성 실종에 대한 사필귀정이다. 또 제19대 국회의 무능과 경제정책 실패에 더 책임 있는 정당에 대한 실망의 표심인 차악(次惡) 선택으로서 어부지리일 뿐이다. 그리고 말쑥한 꽃아도 씩이 나

고, 잎이 들고, 열매가 열린다는 수십 년간의 지역구도의 전설을 믿고 있는 양당체제(兩黨體制)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대양당의 오만방자함을 심판해 달라고 몰아치기 한 정당에 대한 당근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는 투표의 중요성과 힘을 알고 있는 수준 높은 유권자인 국민 표심의 절묘한 배합으로서의 선거권 행사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계는 장애인당사자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장애인정치세력화를 천명하며 장애인의회정치대화를 개설하여 많은 장애계 동량지재(棟梁之才)들을 배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발전에 이바지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여세를 몰아 장애인정치세력화는 제17대 국회 이후 계속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진출하여 국가의 선진복지구

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제20대 국회에도 진출하기 위하여 장애인계는 장애인총선연대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하며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배정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총선에 힘써이고 맡았다. 여당 및 비례대표 당선이 가능한 야당 등 총 4개의 주요 정당에서 모두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당선권 내에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전체 장애인계는 항의성 집회를 열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일 1주일 전에 3천여 명이 집결하여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치권을 규탄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차분하게 자신들의 일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계는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전

개과정에 따라 다양한 선거제도가 존재하지만 완벽한 선거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대의제로 대표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핵심은 얼마나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여, 국민의 의사와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가와 각 정당이 제시한 후보자 명부 순위로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득표율에 따라 후보가 당선되는 우리나라의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제의 경우 비례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의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20대 총선 후보자 선정에서는 모든 정당이 비례성과 민주성을 무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정치세력화는 기존

정치권에 의존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속적으로 주어지는 비례대표 자리는 개인적 역량이 높은 사람에게 주어지거나 정치권을 대표할 만한 거물정치인들이 운 좋게 장애인복지마인드를 가졌을 때 바람처럼 불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번 제20대 총선 결과는 장애인계에 '사라지는 지역구도, 살아있는 유권자의 표심'이라는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시사했다. 이러한 시기에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많이 없지만, 최악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계는 전국적 기반 위에서, 장애인복지라는 정치 본연의 업무인 정책을 중심으로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둥지엔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團生散死)'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다.

리더스토리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장재곤 협회장



"사형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연설 연단 위에 오를 권리도 당연히 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참정권 부여를 강력하게 주장하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올랭프 드 구즈의 말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우리사회의 다양한 직능(職能)과 소외계층을 대표하고 전

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지난 2002년 3월부터 시행된 비례대표제에서 장애인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지난 2월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장애인 및 여성단체 등 사회 각층에서 즉각적인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선진화하고 있으나, 정치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보듯 각 당은 당내 계파 싸움에만 혈안이 돼, 나눠 먹기식의 공천을 자행했다. 이는 역

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정당의 공천은 각 당이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해야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의원 후보공천은 그동안 가혹이나 신뢰받지 못한 국회가 더욱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생각해 소외계층을 챙긴다고 강조한다. 여야 정당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고대 그리스시대에 처음 꽃을 피운 민주주의는 그 모습과 형태를 달리해 왔지만 기본적

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그중 '폐기된 소수의견'이라고 해도 다수의견 만큼이나 중요성을 가진다'는 내용이 있다. 어떤 사건에서는 무시된 의견이지만 다른 상황이나 시기에는 다수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표를 의식한 정당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조해 왔다. 그래서 18대와 19대 국회는 소외계층의 상징인 장애인 단체 대표를 비례대표 2번에 배치했다.

그러나 이번 공천 결과, 각 정당 당선순위 상위권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후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기존의 소외계층 비례대표들이 뚜렷한 족적

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구조와 관례에 비춰 볼 때, 비례대표를 선거철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이용해 왔을 뿐, 진정성 있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힘을 실어준 적이 있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중 5명은 장애인이다. 총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이 국회에 1%도 진출하지 못하는 현실은 얼마나 부당한가.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안 된다.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 장애인 스스로 지켜야 한다. 장애인인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로 뭉뚱 뭉쳐 정치세력화의 길을 굳건히 가야 한다. 그리한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을 대변하는 비례대표를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보이지 않는 20대 국회

2016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강동을 세계로

제24회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6년 4월 30일(토)오전8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

풀 | 하프 | 5km

SEOUL 2016 WHEELCHAIR MARATHON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